

8장. 빌닷의 첫 번째 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창대해질 것이다 (8:1-7)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엘리바스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욥에게 적용하였으나(참조: 4:7-11) 빌닷은 죄를 직접 언급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8:4).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심판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의로운 처소로 거하게 하는 데서도 나타나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8:7) 하고 권고하였다.

조상들과 자연에게서 배우는 지혜 (8:8-19)

빌닷은 고통이 죄에서 비롯한다는 자기의 확신을 조상들의 지혜를 들어서 뒷받침하였다. 선조의 지혜는 사람의 짧은 생애를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8:8-10).

빌닷은 자연계의 일들을 들어서 악인의 취약함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왕골과 갈대가 다른 식물보다 푸르고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풀보다 먼저 마른다. 악인이 겉보기에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둘째, 거미줄의 비유를 든다. 거미줄은 겉보기에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없다. 셋째, 어떤 식물이 무성하게 자랐으나 뽑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8:11-19).

하나님은 순전한 자는 불드신나 악인의 장막은 없애신다 (8:20-22)

빌닷은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욥이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암시하고, 그에게 돌이키라고 권한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막을 세워 주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럽게 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앨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암시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으나(1:1, 8: 2:3), 빌닷은 욥이 회개하고 순전함으로 돌이키기를 완곡히 권하고 있다.

묵상과 실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욥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위에 있다. 특히 자영업하는 가게에 이 구절이 들어 있는 액자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이 구절을 누가 어떠한 맥락에서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 구절의 ‘나중’은 욥의 마지막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다.

그런데 이 구절은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빌닷은 자녀와 재산을 잃

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욥이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 자기의 인과응보적 관점을 강화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은 정당하지 않다. 8:7은 맞는 말이지만, 빌닷은 그릇된 문맥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욥이 순전함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사실이지만, 빌닷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였다. 이 말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겨자씨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 사람이 회개하면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된다.